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순도

2002년 8월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양 순 도

양 순 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양 순 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연구는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이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분노상황에 따른 감소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7세)과 4학년(9세) 아동 남녀 각각 30명씩 120명, 감소전략의 효과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의 대상 120명과 이들의 부모 120명 등 모두 360명이며, 조사방법은 담임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세 가지 분노상황과,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제시한 자녀의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7가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Covell과 Miles(1992)가 제작한 도구를 오혜연(1994)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감소전략 조사)와, 2002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전략효과평가 조사)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각 분노상황에서 분노감소전략은 직접적 개입전략, 간접적 개입전략, 무반응(회피), 기타로 나누어 자녀의 연령별, 성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노감소전략 효과평가에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차이는 χ^2 검증을, 부모의 효과평가 차이는 t검증을 하였다. 유의수준은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이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사용한 전략은 분노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 분노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이에 효과적인 감소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2)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사용한 전략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든 분노상황에서 9세의 자녀들이 7세의 자녀들보다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3)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사용한 전략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인적 분노상황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많이 제시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아들은 남을 위로하기, 즐겁게 해주기에 더 익숙해있으며,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사회화의 영향이 성차를 나타낸다.

4)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9세의 자녀가 7세의 자녀보다 7개의 모든 전략에서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

5)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전략별로 차이가 있다.

6)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거의 모든 전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이 연구에 나타난 결과는 단순히 인지된 상황에서의 반응이므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상황을 재연해보거나 실제상황에서의 반응을 조사한다면 자녀가 제시하는 분노감소전략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들은 모든 분노상황에서 부모의 분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개입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화를 낼 때에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자녀들의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부모 분노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고치려고 할 것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해석만으로는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분노의 개념과 특징	5
2. 부모의 분노상황 인지와 자녀의 반응	7
3. 분노감소전략	10
4. 분노상황과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14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검사도구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16
3. 검사도구	18
4. 연구절차	21
5. 자료처리 및 분석기준	22
IV. 결과 및 해석	23
V. 요약, 결론 및 제언	38
1. 요약	38
2. 결론	41
3. 제언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5
부 록	48

< 표 목 차 >

<표 III- 1>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연령별 성별 분포	15
<표 III- 2> 상황별 분노원인 및 그 내용	17
<표 III- 3> 분노상황	18
<표 III- 4> 분노감소전략 분석기준	19
<표 III- 5> 분노감소전략 효과 평가 항목	20
<표 IV- 1> 각 분노상황에서의 분노감소 전략	23
<표 IV- 2> 각 분노상황에서 연령별 분노감소전략	25
<표 IV- 3> 각 분노상황에서 성별 분노감소전략	26
<표 IV- 4> 부부갈등 상황에서 각 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 ..	27
<표 IV- 5> 분노감소전략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28
<표 IV- 6> 전략 1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29
<표 IV- 7> 전략 2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30
<표 IV- 8> 전략 3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31
<표 IV- 9> 전략 4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32
<표 IV-10> 전략 5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33
<표 IV-11> 전략 6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34
<표 IV-12> 전략 7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35
<표 IV-13>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	36

[그림 목 차]

[그림 1] 각 분노상황에서 분노감소 전략	24
[그림 2] 전략 1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29
[그림 3] 전략 2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30
[그림 4] 전략 3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31
[그림 5] 전략 4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사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두뇌가 발달함은 물론 정서 및 사회성의 발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건전한 정서적 발달이 주는 정서적 경험은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서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모든 반응들을 포함하므로 인성의 모든 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많은 아동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환경 속에서 아동은 성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정서적 또는 행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의 분노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며, 자녀들은 자신에게 직접 향해진 분노나 공격성, 또는 이러한 분노의 분위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분노 분위기에 노출되면 아동들은 심리적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분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뿐만 아니라 타인의 분노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모의 분노에 대하여 자녀들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가정은 타인의 분노를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므로

특히 중요한 환경이다. 또한 가정은 개인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인격체로 성장해 간다. 즉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타인의 분노를 인식하고 분노에 노출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으며 타인의 분노상태를 다른 정서상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모의 갈등에 개입하려 하며(오혜연, 1994, 재인용) 실제로 부모의 분노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동의 정서적 경험은 인성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는 쾌, 불쾌 차원의 단순한 감정과 달리 인지, 감정, 충동, 신체적·생리적 반응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자극된 상황에 대처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안혜준, 1994).

근래에 와서 아동의 정서 이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여러 가지 정서적 신호를 해석할 수 있다(Campos, 1983)고 한다. 또래나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의 정서-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행위는 아동에게 꼭 필요한 관점이 된다. 이들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이 화난 감정을 언제, 어떻게 통제해야 하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분노에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오혜연, 1994, 재인용). 김소향(1994)은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 정도가 심각할 때, 아동은 부부갈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분위기가 호전되도록 하는 의지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분노에 개입할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지발달에 관하여 연구한 이론가들은 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복잡한 추론을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주어진 요소를 종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들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는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이 분노상황 및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토대로 하여 설정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부모의 평가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분노감소전략

자녀가 부모의 분노를 완화시키거나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하여 근심 나타내기, 원조 구하기,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인 위안 제공하기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2) 직접적 개입전략과 간접적 개입전략

여기에서 직접적 개입전략이란 부모의 분노감소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의 분노상황에 개입할 때 상황의 구체성과 상황적 정보 및 분노의 원인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반면에 간접적 개입전략이란 부모의 분노감소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의 분노상황에 개입할 때 상황의 구체성과 상황적 정보 및 분노의 원인을 무시하고 대략적으로 분노를 감소시키려는 전략을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자녀들이 사용한 전략이 직접적으로 분노상황에 개입된 전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묘사된 전략을 설문지를 통하여 기술된 인지적 전략이다.

2) 아동들의 정서상태가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분노상황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조사방법이 관찰이나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이 아닌 질문지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에 의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 및 자녀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분노의 개념과 특징, 부모의 분노상황 인지와 자녀의 반응, 분노감소전략, 부모의 분노상황과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분노의 개념과 특징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은 일차적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분노와 공포, 슬픔 등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지향적인 기쁨을 들 수 있다.

그 중 분노(憤怒, anger)는 자기 요구의 실현을 부정 내지 저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서 생기는 정서의 하나(두산세계백과사전, 2002)로,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며,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집단 등에 의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

분노는 대인정서로 Roseman(1984)은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불일치 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쌍방관계 혹은 소그룹에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분노는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이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는 언어로써 강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대인정서는 화난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대상의 분노를 경험하는 것 역시 분노의 기능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분노는 갈등적 정서이다. 안혜준(1984, 재인용)은 분노를 생물학적 수준에서는 협동적 사회적 생활, 상징화, 반성적 자기인식과 관계된 정서이며, 심리적 수준에서는 그릇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을 교정하려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갈등적 정서는 충동적 정서(기호, 혐오) 및 초월적 정서 상태와는 구별된다. 갈등이 일어나면 새로운 행동형태가 유발되고 강화된다. 분노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어나므로 비난받기 쉬우며 일상적 경험에서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에서 더 자주 표현된다.

분노는 조화로운 사회생활, 상징화(symbolization), 반성적 자기 인식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인간사회는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규칙이 깨지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며, 분노는 이런 흥분에 의하여 일어난다.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상징적 사고의 기능이며,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칙에 따라 감시하는 반성적 자기인식능력과의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때 분노는 매우 상징적 활동이다.

분노는 그릇된 것을 교정하려는 기능이 있다. 심리적 수준에서는 화난 사람이 대상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분노가 단순히 대상에 대한 해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루기 힘든 폭력의 경우까지이며, 교정은 여러 수준과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분노란 자기의 요구에 대한 실현이 불일치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정서로, 분노표현을 통하여 남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반성적 자기인식능력을 일깨워주기도 하며, 대상의 잘못을 교정해보려는 의도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 특징으로 얼굴 표정, 강한 언어,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대인 정서이며 갈등적 정서이고 상징적 행위이다.

2. 부모의 분노상황 인지와 자녀의 반응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은 대체로 영아들이 생후 6개월에 화난 얼굴과 웃는 얼굴을 명확하게 구별하며(Averill, 1982), 유아들에게 어머니의 분노를 귀인하게 했을 때, 5~6세의 아이들은 분노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한편, 7~15세의 아이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의 분노를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믿었다(Covel & Abramovitch, 1987). 이는 인과귀인면에서 상대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에 의한 분노가 아님에도 타인의 갈등과 분노에 대하여 관여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rter(1982)는 4~11세의 아동들에게 행복, 슬픔, 분노, 공포를 나타내는 사진을 보여 주고, 그 사진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지와 아동의 부모가 그런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연령이 어린 유아일수록 자신들이 부모의 정서에 원인이 된다고 했으며, 특히 분노 정서에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분노에 대하여 아동이 자기 자신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판단이 자기중심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어머니의 분노도 자기와 연관시켜서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이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얼굴표정 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경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유용하다(안혜준, 1994, 재인용)고 하였다. 얼굴표정에 대한 정보를 주는 표현단서와, 이것과 함께 경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는 상황단서를 함께 주었을 때, 아동들은 상황적 정보 이전에 표현적 단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서를 추론한다. 또한 Master와 Carlson(1984) 등 어린이 정서에 관하여 연구한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추론할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성이 증가되고 그 결정요소의 수도 증가하며, 4~9세의 아동들은 문제중심해결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가정 내 분노 및 애정을 나타내는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의 발달적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Cummings & Cummings, 1988)에 의하면, 유아는 분노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첫째는 긴장, 근심 등의 내면적 정서반응, 둘째는 외현적 정서반응(예: 울기), 다음으로 중재하거나 분쟁을 막는 시도하기 등의 몇 가지 수준으로 반응하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단계와 관련하여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은 발달수준에 맞는 최선의 방법인 울기, 미소 또는 웃기, 흥분, 화나서 소리치기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였으며, 학령기 아동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매우 드문 것이었다. 학령기 아동들은 공정하고 의도적이며, 정서적으로 통제되고 계획적 방식으로 갈등을 약화시키면서 조정자처럼 더욱 정교하게 행동하였다고 했다.

분노와 애정은 감정적인 대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서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분노는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더구나 자녀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향해진 분노나, 이런 분위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아동이 타인의 분노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어머니의 분노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분노는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고 분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스트레스 대처반응을 반영한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한 Zegans(1984)에 의하면, 스트레스 반응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오혜연, 1994, 재인용). 첫째는 놀람의 단계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는 신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은 병에 더 잘 걸린다고 한다. 둘째는 승인의 단계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승인하는 단계로 인지적 승인의 차이는 자극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차이를 가져온다. 셋째는 대체전략을 찾는 단계로 아동이 울음, 울화, 사고 기술, 또래와 몰두하는 능력과 같은 대처자원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즐겁지 않은 상황은 무시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대신 만족할 것을 찾는다. 넷째는 대처반응의 수행단계로 왜곡이나 거부, 내적 통제, 외적 통제 등의 반응을 나타낸다. 내적인 통제는 잘못된 행동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뉘우치는 것이며, 외적인 통제는 잘못된 행동을 운명이나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Cummings 등(1988)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의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지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으며,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해결된 분노보다 부정적 사건으로 더 크게 인식되고 분노감정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 중 신체적인 분노표현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또한 큰 차이는 없으나 여아는 남아보다 성인의 행동에 대해 분노감을 더 느꼈으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성인의 갈등에 개입하여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기술이나 인지적 분류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갈등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어린 영·유아들은 보통 싸우는 사람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반면, 학령기 아동들은 갈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통제되고 계획적인 방법을 말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은 외현적 정서반응은 줄어들고 정서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사회적 기술을 더욱 발달시킨다. 즉 아동이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분노 또는 갈등에 개입하거나 중재하려는 문제 중심의 대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3. 분노감소전략

아동들은 타인의 분노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를 변화시켜야하는 정서로 평가하며,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정서상태를 일으킨 원인을 조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실제로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입하려고 한다.

Covell과 Miles(1992)는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아동의 전략에서 분노의 원인에 대한 상황적 정보를 사용한 개입을 ‘직접적 개입전략’이라 하였으며,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분노를 일으킨 상황과 관련이 없는 전략을 ‘간접적 개입전략’이라 하였고, 그 외에 ‘무반응(회피)’, ‘기타(혹은 모르겠다)’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분노상황, 아동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이 제시한 전략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7~9세 아동이 더 어린 아동보다 직접적 개입전략의 제시는 더 잘 하였으나, 이러한 전략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하였을 때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적 개입전략의 효과를 낮게 평가하였다.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유아의 신념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차이의 연구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분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인적 분노상황에서는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많이 제시하였으며, 이 때에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성차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개입은 분노의 원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 인지적 측면의 발달은 탈중심화를 포함한 조망수용능력,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등을 요구한다.

조망수용능력이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망수용에 대한 Piaget 등의 실험

(오혜연, 1994, 재인용)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위치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조망수용능력 발달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제1단계(4~6세)는 과제제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과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오류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제2단계(6~7세)는 자신과 타인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탈중심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마지막으로 제3단계(7~11세)는 자신과 타인의 관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역할을 인지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성숙한 방향으로 발달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몰두되어 있는 상태인 자기중심적인 조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은 자기중심성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탈중심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설명되는데, Borke(1973)에 의하면 탈중심화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망의 자각을 요구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망수용능력 이외의 실제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조망수용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개입전략의 발달은 조망수용능력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의 발달도 요구된다. 종래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과제에 대한 인지적 능력에 한정되는 것으로 실생활에서의 적응능력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게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적 개념의 문제해결능력은 주로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관련되는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인 적응능력을 예언할 수 있는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관계는 그 관계의 시작, 유지, 갈등 및 문제의 해

결이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대인간 문제해결과정은 대인관계에서 있게 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Krasnor & Rubin, 1981).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이도경 등(1993)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대인간의 문제해결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용하며 가능한 해결방법을 숙고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연속적인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란 대인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을 궁리하는 능력으로 단순한 한 가지 능력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연속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도경(1993. 재인용)은 이러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다음의 다섯 가지의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문제에 대한 민감성으로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대인간 문제들의 존재에 대한 민감성을 말한다. 둘째, 대안적 해결사고력으로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며 해결방안 선택 시 대안적 절차를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다. 셋째, 수단-목적 사고력으로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이며,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나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통찰력 등이 포함된다. 넷째, 결과적 사고력으로 자신이 수행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원인적 사고력으로 타인의 행동, 감정, 동기의 원인을 생각해내는 것이며,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을 연관시키는 능력이다.

이들 다섯 가지 능력은 별개의 능력이면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통합되고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학령전 아동기에는 대안적 해결 사고력이, 학령기 아동에게는 수단-목적 사고력이 대안적 사고력과 더불어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대표하며, 청년기와 성인기에는 수단-목적 사고력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 사고력과 원인적 사고력도 영향을 미치나 대안적 사고력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목적 사고력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단을 단계적으로 헤아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충동적인 실수를 범하기 쉽고 그로 인해 공격적인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쉬우며, 반대로 수단-목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노재석, 1987; 이도경, 1993,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동들은 타인이 분노상황에 처했을 때에 타인의 분노정서를 변화시켜야하는 정서로 평가하며,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정서상태를 일으킨 원인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실제로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개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개입은 분노의 원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능력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몰두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는 탈중심화, 자기중심성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조망수용능력,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창조하는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등의 사회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분노상황과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가정 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표현된 분노는 선행사건의 기능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분노 원인의 억압된 동기나 감정을 대체된 대상으로 방향 수정하는 전위(displacement)를 이해해야 한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경험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개입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험에 의거한 신념을 가지고 개입전략을 제시할 것이다(Camras & Allison, 1984).

5~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또래간의 분노감소전략에 관한 연구(McCoy & Master, 1985)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황적 정보를 사용하였고, 분노의 선행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자녀들은 어릴 때에는 정서적 반응을 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문제 중심의 직접적 개입 또는 중재를 하는 방향으로 변환이 이루어졌다. 자녀들에게 분노에 대한 상황적 정보가 주어졌을 때 분노감소전략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상황적 정보를 사용하는 정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략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이기도 하고 비효과적이기도 하며, 자녀가 부모의 분노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귀포시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부모가 있는 2학년과 4학년 아동 남녀 각각 60명씩 모두 120명을 연령집단별, 남녀별 동수로 하였으며, 이 아동들이 제시한 분노감소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의 아동들(연령별, 남녀별 동수 60명씩 모두 120명)과 이들의 부모도 남녀 각각 60명씩 모두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된 아동과 부모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Ⅲ- 1>과 같다.

<표 Ⅲ- 1>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연령별, 성별 분포

구분	대상	아동			부모		
		남	여	계	남	여	계
분노감소전략	2학년	30	30	60	.	.	.
	4학년	30	30	60	.	.	.
	계	60	60	120	.	.	.
분노감소전략 효과평가	2학년	30	30	60	30	30	60
	4학년	30	30	60	30	30	60
	계	60	60	120	60	60	120

2. 검사도구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가정에서 부모의 분노상황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며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하였다. 조사한 시기는 2000년 12월이며, 서귀포시내 J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과 B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아동 각각 32명씩 모두 64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용 설문지<부록 (1)·(2) 참조>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기초조사의 문항은 부모가 자녀 앞에서 화를 내는 빈도, 부모 중 누가 더 화를 내는지, 부모가 화를 내는 이유와 이에 반응하는 방법이나 내용 등을 무기명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분노상황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님께서서 화를 내는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2~3일에 한 번(22명, 34.38%)이 가장 많고, 하루에 한 번(12명, 18.75%), 1주일에 한 번(11명, 17.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는 1일에 2·3회가 10명(15.63%), 가끔 화를 내는 경우가 9명(14.06%)으로 반응했다.

부모님 중에서 화를 더 많이 내는 분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머니(45명, 70.31%)가 아버지(19명, 29.69%)보다 화를 더 잘 낸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과의 접촉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자녀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가 맡는다는 보편적인 정서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분노상황과 그 내용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노상황과 분노의 구분, 분노의 표현자, 분노유발 원인과 그 내용을 <표 III-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I- 2> 상황별 분노원인 및 내용

상황	분노의 구분	분노의 표현자	분노 유발 원인	내용(예)
상황 1	원인적 분노	아버지	· 물질파손 및 분실	·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 버려서 야단을 들음(6)
			· 자녀의 말썽	· 동생이랑 싸움을 하거나 말썽을 피워서(6) ·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7)
상황 2	원인적 분노	어머니	· 자녀의 말썽	· 동생이랑 싸움을 하거나 말썽을 피워서(10) · 컴퓨터 게임만 많이 해서(7)
상황 3	배경적 분노	아버지	· 아버지 자신의 스트레스	· 사업상의 일 또는 장사가 잘 안됨(11)
			· 부부간 말다툼이나 싸움	·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운 후에 -아무 것도 안하고 말을 안 하거나 담배를 피운다(8)
상황 4	배경적 분노	어머니	·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	· 회사 또는 가게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음(6)
			·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싸움	·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운 후에 -아무 것도 안하고 말도 안 한다(8)

3. 검사 도구

1) 분노상황

이 연구에서 부모의 분노를 감소하기 위한 자녀의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한 세 가지 분노상황은 기초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오혜연(1994)이 사용한 것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부록 참조>, 그 내용은 <표 III- 3>과 같다.

<표 III- 3> 분노상황

상황	분노의 구분	분노 표현자	분노 유발 원인	내용
상황 1	원인적 분노	아버지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	여러분은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상황 2	원인적 분노	어머니	집안에서 말썽을 부린 상황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어서 유리잔에 따르다가 잘못하여 엄마가 아끼는 유리잔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상황 3	배경적 분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자신들 상황	아빠와 엄마가 서로 싸웠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2) 분노감소전략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녀의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Covell과 Miles(1992)가 제작한 도구를 오혜연(1994)이 변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위 1)에 제시한 분노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부록 3 참조>, 감소전략에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분노감소전략 분석기준을 <표 III-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I- 4> 분노감소전략 분석기준

전략 구분	전략의 내용(구분)
직접적 개입전략	<p>자녀 자신이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사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모님의 분노를 말로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언어적 전략.</p> <p>(예: “아빠, 엄마가 화났으니까 가서 사과하세요.”말합니다.)</p>
	<p>부모님의 분노 원인에 적절한 물건으로 보상하는 물질적 전략.</p> <p>(예: “저금통을 깨서 사드리면 돼요.”)</p>
	<p>자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분노의 원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하여 부모님의 화를 풀어드리는 행위적 전략.</p> <p>(예: “어질러놓은 장난감을 잘 정리해요.” “왜 화를 내시는지를 알고 편안하게 해드리면 화가 풀리신다.”)</p>
간접적 개입전략	<p>부모님이 화를 내신 이유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분노를 완화시키는 언어적 전략.</p> <p>(예: “학교에서 칭찬 받은 이야기를 해드려요.”)</p>
	<p>부모님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물건으로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물질적 전략.</p> <p>(예: “아빠나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면 화가 풀려요.”)</p>
	<p>분노상황에 어떤 행동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원인에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실 행동을 하는 행위적 전략.</p> <p>(예: “아빠께 신문을 갖다 드려요.”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멋지게 춤을 보여드려요.”)</p>
<p>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조용히 물러나 있거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식의 위축되거나 순응하는 전략.</p> <p>(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p>	
무반응 (회피)	<p>부모님의 화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했거나 전략을 전혀 내놓지 않는 경우.</p>
기타	<p>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전략.</p> <p>(예: “다음부터 컵을 안 깨면 돼요.”)</p>

앞의 표에서 정리한 부모의 분노상황별 감소전략은 직접적 개입전략, 간접적 개입전략, 무반응(또는 회피),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나중에 감소전략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3) 분노감소전략 효과평가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제시한 자녀의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기초조사 한 내용과 Covell과 Miles(1992)가 제작한 도구를 오혜연(1994)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의 내용들을 동일한 개념의 전략끼리 묶어 모두 7항목으로 구성하였다<부록 4, 5 참조>. 그 내용은 <표 III- 5>와 같으며, 각각의 전략 항목별로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면 2점, 효과가 없으면 1점으로 하였다.

 <표 III- 5> 분노감소전략 효과평가 항목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략 내용 (7개 항목)

1. 싸우지 말라고 한다.
 2.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한다.
 3.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드린다.
 4. 집안 일을 도와 드린다.
 5.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한다.
 6.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7.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떤다
-

4. 연구절차

1) 분노감소전략

① 예비조사

분노상황과 분노감소전략,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귀포시내 B초등학교 2학년 아동 28명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 21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분노상황을 이해하거나 분노감소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② 본조사

분노감소전략에 관한 본조사는 2001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연구자와 담임이 함께 실시하였다. 제시된 세 가지 분노 상황을 잘 읽고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분노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시하게 하였다. 연구 대상은 2학년(만 7세), 4학년(만 9세) 각각 60명씩(남녀 각각 30명 동수)로 하였다.

2)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

① 예비조사

분노감소전략의 효과평가에 사용될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귀포시내 B초등학교 2학년 아동 28명을 대상으로 2001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제시한 부모의 부부갈등상황에서 부모의 기분을 이해하고 분노감소 전략을 제시했을 때의 효과를 응답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② 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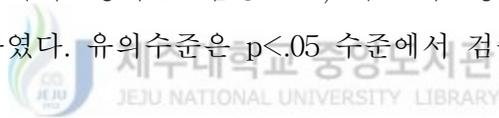
분노감소전략 효과평가에 대한 본조사는 2002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연구자가 조사 대상아동의 담임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평가용 질

문지에 7가지 전략에 따라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대상은 분노감소전략에 관하여 조사를 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용 평가는 아동용 평가 질문지에 응답한 아동의 부모에게 2월 6일에서 7일까지 질문지를 배포하여 7일에서 9일까지 회수하였다. 모두 120명의 부모들 중에서 부모 동수(각각 60명씩)로 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기준

이 연구에서 분노상황 및 자녀의 연령별, 성별 분노감소전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반응별로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분노감소전략 효과평가에서 자녀의 평가는 χ^2 검증으로, 부모의 평가는 t검증에 의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른 자녀의 분노감소전략 실태와, 그 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분노상황에 대한 자녀의 분노감소전략 실태

‘가설 1’은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노상황별 전략과 자녀의 연령별 성별 전략 실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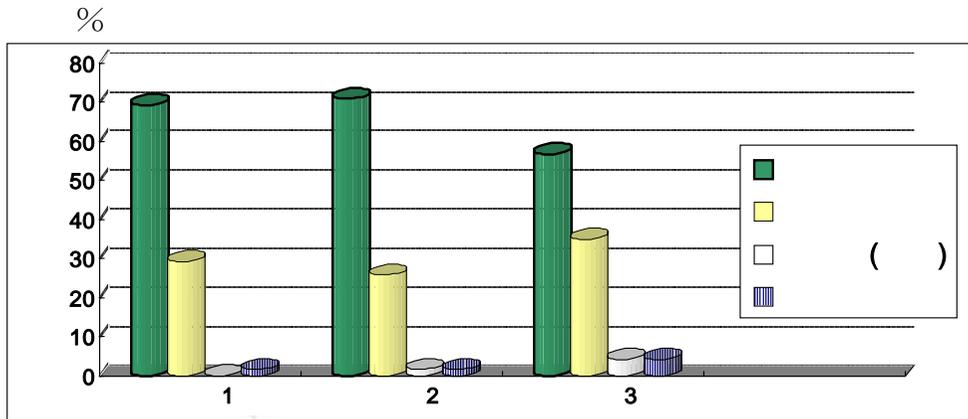
1) 각 분노상황에서의 분노감소전략 실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부모의 분노상황에 대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 실태는 <표 IV- 1>과 같다.

<표 IV- 1> 각 분노상황에서의 분노감소 전략

구분		원인적 분노			배경적 분노	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직접적 개입	빈도	83	85	68	236	
	(%)	(69.16)	(70.83)	(56.66)		(65.56)
간접적 개입	빈도	35	31	42	108	
	(%)	(29.17)	(25.83)	(35.0)		(30.0)
무반응(회피)	빈도	·	2	5	7	
	(%)	·	(1.67)	(4.17)		(1.94)
기타	빈도	2	2	5	9	
	(%)	(1.67)	(1.67)	(4.17)		(2.5)
전체		120	120	120	360	
		(100.0)	(100.0)	(100.0)	(100.0)	

자녀들에게 제시한 분노상황 가운데 ‘상황 1’과 ‘상황 2’는 자녀 자신이 분노의 원인 제공자가 된 원인적 분노였고, ‘상황 3’은 분노의 원인이 자녀가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니라, 단지 부모의 분노를 관찰하게 되는 배경적 분노였다. [그림 1]은 각 분노상황에서 분노감소 전략을 나타낸다.



[그림 1] 각 분노상황에서의 분노감소 전략

<표 IV- 1>과 [그림 1]에 의하면 대다수의 자녀들은 원인적 분노상황에서는 직접적 개입전략(상황 1: 69.16%, 상황 2: 70.83%)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배경적인 분노상황에서는 직접적 개입전략 사용이 56.66%, 간접적인 개입전략 사용도 35.0%가 되었다. 이는 부모가 화를 내는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황의 구체성과 원인을 고려한 직접적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부모가 화를 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략인 간접적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분노상황에 따라 직접적 개입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오혜연(199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2) 각 분노상황에서의 연령별 분노감소전략 실태

각 분노상황에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연령별 분노감소전략 실태를 조사

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IV- 2>와 같다.

<표 IV- 2> 각 분노상황에서의 연령별 분노감소전략

명(%)

구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7세	9세	7세	9세	7세	9세
직접적 개입	빈도	40	43	38	47	29	39
	(%)	(66.67)	(71.67)	(63.33)	(78.33)	(48.33)	(65.0)
간접적 개입	빈도	18	17	20	11	22	20
	(%)	(30.0)	(28.33)	(33.33)	(18.33)	(36.67)	(33.33)
무반응 (회피)	빈도	0	0	1	1	5	0
	(%)	(0)	(0)	(1.67)	(1.67)	(8.33)	(0)
기타	빈도	2	0	1	1	4	1
	(%)	(3.33)	(0)	(1.67)	(1.67)	((6.67)	(1.67)
계		60	60	60	60	60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V- 2>에 의하면 직접적 개입전략은 ‘상황 1’에서 7세 66.67%, 9세 71.67%, ‘상황 2’에서 7세 63.33%, 9세 78.33%로 원인적 분노상황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제시하였다. 반면, 간접적 개입전략은 ‘상황 1’에서 7세 30.0%, 9세 28.33%, ‘상황 2’에서 7세 33.33%, 9세 18.33%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이 감소하였다. 한편, 배경적 분노상황인 ‘상황 3’인 경우에도 직접적 개입전략은 7세 48.33%, 9세 65.0%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제시하였으며, 간접적 개입전략 역시 7세 36.67%, 9세 33.33%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적 개입전략을 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분노원인에 관한 상황적 정보를 사용하는 아동의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한다는 Covell과 Miles(1992)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부모의 분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

황적 정보를 사용한 직접적 개입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각 분노상황에서의 성별 분노감소전략 실태

각 분노상황에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성별 분노감소전략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IV- 3>과 같다.

<표 IV- 3> 각 분노상황에서의 성별 분노감소전략

명(%)

구분		상황 1		상황 2		상황 3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직접적 개입	빈도	39	44	40	45	32	36
	(%)	(65.0)	(73.33)	(66.66)	(75.0)	(53.33)	(60.0)
간접적 개입	빈도	20	15	18	13	21	21
	(%)	(33.33)	(25.0)	(30.0)	(21.66)	(35.0)	(35.0)
무반응 (회피)	빈도	0	0	1	1	3	2
	(%)	(0)	(0)	(1.67)	(1.67)	(5.0)	(3.33)
기타	빈도	1	1	1	1	4	1
	(%)	(1.67)	(1.67)	(1.67)	(1.67)	(6.67)	(1.67)
계		60	60	60	60	60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V- 3>에 의하면 직접적 개입전략은 ‘상황 1’에서 남아 65.0%, 여아 73.33%, ‘상황 2’에서 남아 66.66%, 여아 75.0%로 원인적 분노상황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직접적 개입전략을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접적 개입전략은 ‘상황 1’에서 남아 33.33%, 여아 25.0%, ‘상황 2’에서 남아 30%, 여아 21.66%로 여아가 남아보다 전략을 덜 제시하였다.

한편, 배경적 분노상황인 ‘상황 3’인 경우에도 직접적 개입전략은 남아 53.33%, 여아 60.0%로 여아가 남아보다 전략을 더 제시하였으며, 간접적 개입전략은 남녀 모두 35.0%로 전략을 제시한 비율이 같았다. 반면, 무반

응(회피)과 기타에서 남아(5.0%와 6.67%)가 여아(3.33%, 1.6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분노상황에 더 개입하려는 동기가 강하다고 하는 Covell과 Miles(199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아들이 남아보다 더 부모의 분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황적 정보를 사용한 직접적 개입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

‘가설 2’는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7개 전략별 효과에 대하여 자녀와 부모가 평가한 결과는 <표 IV- 4>와 같다.

<표 IV- 4> 부부갈등 상황에서 각 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 명(%)

개입전략(7항목)		자녀의 평가		부모의 평가	
		효과 있음	효과 없음	효과 있음	효과 없음
1. 싸우지 말라고 한다	빈도 (%)	63 (52.50)	57 (47.50)	97 (80.83)	23 (19.17)
2.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해 준다.	빈도 (%)	83 (69.17)	37 (30.83)	106 (88.33)	14 (11.67)
3.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준다.	빈도 (%)	64 (59.33)	56 (46.67)	106 (88.33)	14 (11.67)
4. 집안 일을 도와 드린다.	빈도 (%)	94 (78.33)	26 (21.67)	104 (86.67)	16 (13.33)
5.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한다.	빈도 (%)	81 (67.50)	39 (32.50)	104 (86.67)	16 (13.33)
6.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빈도 (%)	83 (69.17)	37 (30.83)	107 (89.17)	13 (10.83)
7.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떤다.	빈도 (%)	82 (68.33)	38 (31.67)	105 (87.5)	15 (12.50)

<표 IV- 4>를 살펴보면 자녀와 부모들 모두가, 분노상황에서 사용한 모든 전략들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용한 모든 전략들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모든 항목에서 80.83%~89.17%)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자녀와 부모사이에 평가에 많은 차이가 나는 전략으로는 ‘싸우지 말라’는 전략(자녀 52.50%, 부모 80.83%)과,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주는’ 전략(자녀 59.33%, 부모 88.33%)으로 부모가 평가한 효과에 비하여 자녀들은 그 효과를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1)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

<표 IV- 5>는 ‘가설 2-1’,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각 전략항목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IV- 5> 분노감소전략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빈도(백분율)

구 분		연령별		성별	
		7세	9세	남아	여아
전략 1	빈도 (%)	22 (36.67)	41 (68.33)	32 (53.33)	31 (51.67)
전략 2	빈도 (%)	33 (55.0)	50 (83.33)	42 (70.0)	41 (68.33)
전략 3	빈도 (%)	27 (45.0)	37 (61.67)	36 (60.0)	28 (46.67)
전략 4	빈도 (%)	45 (75.0)	49 (81.67)	46 (76.67)	48 (80.0)
전략 5	빈도 (%)	34 (56.67)	47 (78.33)	41 (68.33)	40 (66.67)
전략 6	빈도 (%)	37 (61.67)	46 (76.67)	40 (66.67)	43 (71.67)
전략 7	빈도 (%)	37 (61.67)	45 (75.0)	39 (59.09)	43 (71.67)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전략 1: 싸우지 말라고 한다.

전략 2: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해 준다.

전략 3: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준다.

전략 4: 집안 일을 도와 드린다.

전략 5: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한다.

전략 6: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전략 7: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떤다.

<표 IV- 5>를 보면 연령에서 9세의 자녀(61.67~83.33%)가 7세의 자녀(36.67~75.0%)보다 모든 전략에서 효과를 높게 평가했으며, 성별에서는 전략에 따라 남녀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전략 항목별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① ‘전략 1’에 대한 효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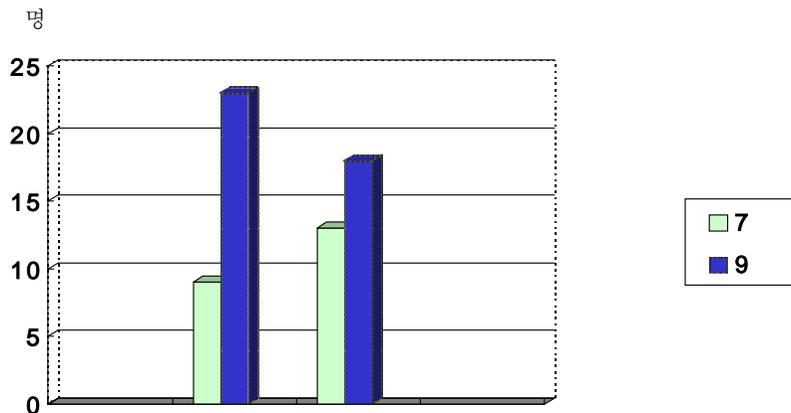
<표 IV- 6>은 ‘전략 1’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6> ‘전략 1’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 ²
		N	빈도	N	빈도	
7세		30	9	30	13	5.14*
9세		30	23	30	18	

전략 1: 싸우지 말라고 한다.

*p<.05



[그림 2] 전략 1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 평가

<표 IV-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전략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과의 효과평가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 6>과 [그림 2]에서 7세의 경우는 여아(13명)가 남아(9명)보다, 9세의 경우는 남아(23명)가 여아(18명)보다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효과 평가에서는 9세가 7세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② ‘전략 2’에 대한 효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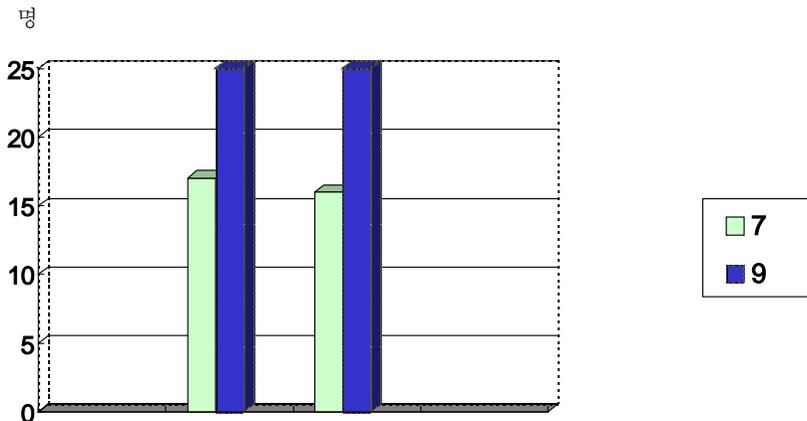
<표 IV- 7>은 ‘전략 2’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7> ‘전략 2’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 ²
		N	빈도	N	빈도	
7세		30	17	30	16	4.63*
9세		30	25	30	25	

전략 2: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해 준다.

* $p<.05$



[그림 3] ‘전략 2’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표 IV-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해 주는’ 전략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과의 효과평가($x^2=4.63$, $p<.05$)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 7>과 [그림 3]에서, 연령별로는 9세의 경우 남녀 모두(25명) 7세(남 17명, 여 16명)보다 ‘전략 2’가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효과 평가에서도 9세가 7세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전략 3’에 대한 효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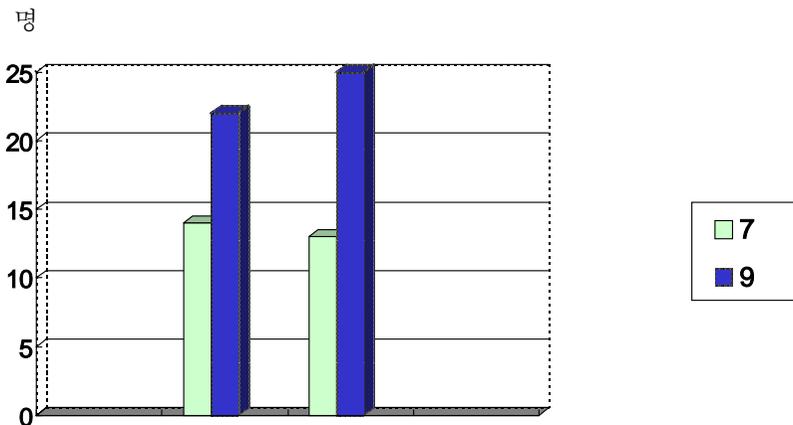
<표 IV- 8>은 ‘전략 3’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8> ‘전략 3’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2
		N	빈도	N	빈도	
7세		30	14	30	13	5.20*
9세		30	22	30	15	

전략 3: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준다.

* $p<.05$



[그림 4] ‘전략 3’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표 IV- 8>에서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주는’ 전략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서 성별과 연령과의 효과평가($x^2=5.20$,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 8>과 [그림 4]에서 7세의 경우에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9세의 경우는 남아(22명)가 여아(15명)보다 ‘전략 3’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효과 평가에서는 9세가 7세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전략 4’에 대한 효과평가

<표 IV- 9>은 ‘전략 4’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9> ‘전략 4’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2
		N	빈도	N	빈도	
7세		30	21	30	24	1.91
9세		30	24	30	24	

전략 4: 집안 일을 도와 드린다.

<표 IV- 9>에서 ‘집안 일을 도와 드리는’ 전략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가 통계적($x^2=1.91$)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9세가 7세보다 효과를 약간 높게 반응하였다.

⑤ ‘전략 5’에 대한 효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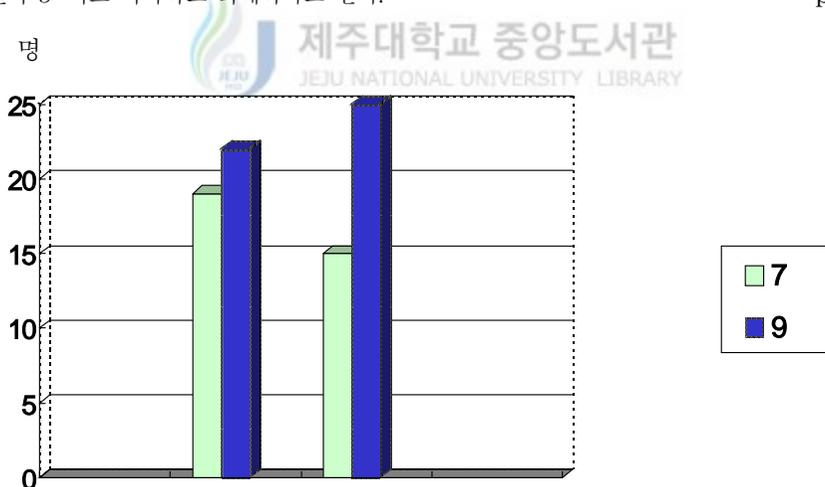
<표 IV-10>은 ‘전략 5’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10> ‘전략 5’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 ²
		N	빈도	N	빈도	
7세		30	19	30	15	3.55 *
9세		30	22	30	25	

전략 5: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한다.

*p<.05



[그림 5] ‘전략 5’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성별 연령별 효과평가

<표 IV-10>은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한다’는 전략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과의 효과평가($x^2=3.55$, $p<.05$)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7세의 경우는 남아(19명)가 여아(15명)보다, 9세의 경우는 여아(25명)가 남아(22명)보다 ‘전략 5’가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효과 평가에서는 9세가 7세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전략 6’에 대한 효과평가

<표 IV- 11>은 ‘전략 6’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11> ‘전략 6’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 ²
		N	빈도	N	빈도	
7세		30	18	30	19	1.54
9세		30	22	30	24	

전략 6: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표 IV- 11>에서 보면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과의 효과평가에서 통계적 ($x^2=1.5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7세와 9세의 경우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효과 평가에서는 9세가 7세보다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⑦ ‘전략 7’에 대한 효과평가

<표 IV- 12>는 ‘전략 7’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 12> ‘전략 7’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성별 효과평가

연령별	성별	남아		여아		x ²
		N	빈도	N	빈도	
7세		30	17	30	20	1.19
9세		30	22	30	23	

전략 7: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떠ندا.

<표 IV- 12>에서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떠는’ 전략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과의 효과평가가 통계적($x^2=1.19$)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7세와 9세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전략 7’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효과 평가에서는 9세가 7세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9세의 자녀가 7세의 자녀보다 모든 전략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효과평가에서는 전략에 따라 남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

<표 IV- 13>은 ‘가설 2-2’, 부모의 평가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유의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부모의 성별에 따라 각각의 전략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IV- 13>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
평균(표준편차)

전략		아버지	어머니	t
전략 1	M (SD)	1.78 (0.42)	1.83 (0.38)	2.21
전략 2	M (SD)	1.85 (0.36)	1.92 (0.28)	2.39*
전략 3	M (SD)	1.82 (0.49)	1.95 (0.22)	3.23*
전략 4	M (SD)	1.83 (0.38)	1.90 (0.30)	2.39*
전략 5	M (SD)	1.83 (0.38)	1.90 (0.30)	2.39*
전략 6	M (SD)	1.88 (0.32)	1.90 (0.30)	2.23
전략 7	M (SD)	1.87 (0.34)	1.88 (0.32)	2.23
전 체		1.84	1.90	3.96*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p<.05

전략 1: 싸우지 말라고 한다.

전략 2: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해 준다.

전략 3: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준다.

전략 4: 집안 일을 도와 드린다.

전략 5: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한다.

전략 6: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전략 7: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떤다.

<표 IV- 13>에서 부모들은 모든 항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M: 1.78~1.92, SD: 0.22~0.42)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 전략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모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전략(전략 2)과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주는’ 전략(전략 3), ‘집안 일을 도와 주거나’(전략 4),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전략(전략 5) 등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에 대하여 효과를 높이 평가한 것은 실생활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된 일들이기에 작은 일에도 감동하며, 어머니의 분노에 노출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분노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Covel & Abramovitch, 1987)는 이론을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 전략이 분노의 원인 및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녀의 분노감소전략은 부모의 분노상황에 따라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부모의 평가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과정은 기초조사, 도구보완, 자료조사, 통계처리와 자료분석의 순으로 하였다. 서귀포시내 J초등학교 2학년 아동과 B초등학교 4학년 아동 각각 32명씩 모두 64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 앞에서 화를 내는 빈

도, 부모 중 누가 더 화를 내는지, 부모가 화를 내는 이유와 이에 반응하는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부모의 분노를 감소하기 위한 자녀의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한 세 가지 분노상황과,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제시한 자녀의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한 7가지 전략은 연구자의 기초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Covell과 Miles(1992)가 제작한 도구를 오혜연(1994)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분노상황에 따른 감소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2학년(7세)과 4학년(9세) 아동 남녀 각각 30명씩 120명, 감소전략의 효과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의 대상 120명과 이들의 부모 120명 등 모두 360명이며, 조사방법은 담임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전략분석은 직접적 개입전략, 간접적 개입전략, 무반응(회피), 기타로 나누었으며, 자료분석은 분노상황에 따른 감소전략은 자녀의 연령별 성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자녀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전략 효과평가의 차이는 χ^2 검증을 하였으며, 부모의 효과평가 차이는 t검증을 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들은 모든 분노상황에서 직접적 개입전략(65.56%)을 간접적 개입전략(30.0%)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음(95.56%)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화를 내는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인 원인적 분노상황에서는 분노상황의 구체성과 원인을 고려한 직접적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부모가 화를 낸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략인 간접적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원인적 분노상황 및 배경적 분노상황 모두에서 자신이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분노상황의 원인과 구체성을 이용하여 직접 개입함으로써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부모의 분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황적 정보를 사용한 직접적 개입(9세 71.67%, 7세 59.44%)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남녀의 전략을 비교하였을 때, 원인적·배경적 분노상황 모두에서 직접적 개입전략을 여아들(69.44%)이 남아들(61.67%)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간접적 개입전략은 남아들(32.78%)이 여아들(27.22%)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분노상황에서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더 부모의 분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하여 상황적 정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들이 사용한 분노감소전략의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가 연령별,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전략'(전략 1)과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전략'(전략 2),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주는 전략'(전략 3)과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전략'(전략 5) 등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61.67~83.33%)의 자녀가 7세(36.67~75.0%)의 자녀보다 모든 전략에서 효과를 높게 평가했으며, 성별에서는 전략에 따라 남녀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5)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부모들은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항목에서 어머니들(M 1.83~1.95)이 아버지들(M 1.78~1.87)보다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주거나’(전략 3) ‘집안 일을 도와 드리는’ 전략(전략 4)과 ‘서로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전략’(전략 5), 그리고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말해 주는’ 전략(전략 6) 등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전략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 결론

이 연구 결과의 요약을 토대로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사용한 전략은 분노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 분노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이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2)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녀의 전략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든 분노상황에서 9세의 자녀들이 7세의 자녀들보다 직접적 개입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원인적 분노 상황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직접적 개입전략을 더 많이 제시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아들은 남을 위로하기, 즐겁게 해주기에 더 익숙해있으며,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사회화의 영향이 성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4)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9세의 자녀가 7세의 자녀보다 7개 전략에서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

5)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전략별로 차이가 있다.

6)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주거나'(전략 3) '집안 일을 도와 드리는' 전략(전략 4)과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전략'(전략 5), 그리고 '부모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말해 주는' 전략(전략 6) 등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3.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자녀들은 원인적 분노상황에서는 주로 직접적 개입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배경적 분노상황에서는 간접적 개입전략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나타난 결과는 단순히 인지된 상황에서의 반응이므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상황을 재연해보거나 실제상황에서의 반응을 조사한다면 자녀가 제시하는 분노감소전략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들은 모든 분노상황에서 부모의 분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개입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화를 낼 때에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자녀들의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부모 분노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고치려고 할 것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사용한 분노감소전략 효과에 대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해석만으로는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 김유숙(2000).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정환(1999). 교육연구 및 통계방법, 서울: 원미사.
- 성태제(2000).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영숙 외 2인(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 로저 매킨타이어 지음. 자녀교육 손자병법, 이선주 역(2001), 조선일보사.
- 피에로 페르치 지음. 아이의 가슴에는 부모가 산다, 이옥자 역(2000), 서울: 사람ⁱⁿ.
- 김미화(1994).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갈등해결방식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혜연(1994). 부모의 분노상황과 아동의 분노감소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찬욱(1987).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안혜준(1994). 부모의 분노감소를 위한 유아의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도경(1993). 아동의 연령·성 및 인지양식 유형에 따른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 노재석(1987). 가정의 생육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두산동아(2002). 두산세계백과사전, 인터넷사이트.
- Averill, J. R.(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asy on Emotion*, New York: Donnelly & Sons Company.
- Borke, H.(1973).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Chineses and American Children between Three and Six Years of Ag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 Campos, J. J.(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 Camras, L. & Allison, K.(1984). *Children's and Adults' Concepts of Emotion Elicitors*, Unpublished Manuscript, Depal University, Chicago.
- Covell, K. & Abramovitch, R.(1987). Understanding Emotion in the Family: Children's and Parents' Attributions of Happiness, Sadness and Anger, *Child Development*.
- Covell, K. & Miles, B.(1992). Children's Beliefs about Strategies to Reduce Parent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 Cummings, E. M. & Cummings, J. S.(1988). A Process 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 Review*, 8.
- Harter, S.(1982).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ren's Understanding of Affect and Trait Labels*, New York: Guilford Press.
- Krasnor, L. R. & Rubin, K. H.(1981). *The Assessment of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Master, J. C. & Carlson, C. R.(1984).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oy, C, L. & Master, J, C.(1985).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trategies for the Social Control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6.
- Roseman, I.(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Beverly Hills*.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ger Situation and Children's Anger Reduction Strategy

Yang, Soon-Do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eol-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of children's anger reduction strategy utilized to reduce the anger of the par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e under anger situation and to investigate about the evaluation of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on the effect of anger reduction strategy. Following are the research topics for specific accomplishment of the research.

Topic 1: What is the difference of children's anger reduction strategy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age under the parents' anger situation?

Topic 2: How do children and parents evaluate about the effect of anger reduction strategy, utilized by children in the situation of parent dilemma?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 were a total of 120 students: 30 male and 30 female, second and fourth grade students with parents in elementary school to investigate about anger reduction strategy; and 360 students and parents: 120 students and 120 parents to investigate about the effect evaluation of the strategy.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homeroom teach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for the research metho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The tool for the experiment of this research was based on 7 strategies to investigate about the effect of children's strategy proposed to reduce parent's anger and three anger situations. A tool produced by Covell and Miles(1992), which was interpreted and modified by Oh, Hyaе-Yeon(1994) was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to be utilize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December 6, 2001 to December 7, 2001 for anger reduction strategy investigation, and from February 6, 2002 to February 7, 2002 for strategy effect evaluation investigation.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surveys.

The data was analyzed as follows. In the anger situation, anger reduction strategy was sub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 strategy, no-response (avoidance), and others to conduct the following: frequency and percentage tes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e; χ^2 test for difference in effect evaluation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and t-test for difference in parents' effect evaluation. The test was conducted in the level of $p < .05$.

Following are the results.

1) Children's strategy to reduce the parents' anger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is proves that children have accurate knowledge in the cause of parents' anger and can utilize effective anger reduction strategy.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ategy children had utilized to reduce parents' anger according to the age. In all anger situation, the nine year olds utilize more direct intervention strategy than the seven year olds.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ategy children had utilized to reduce parents' anger according to the gender. In anger situation with causes, female children propose more direct intervention strategy than the male children. This proves that female children are more familiarized with comforting others and giving enjoyment to others than male children. Also,

direct socialization influence according to the parents in family display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evaluation about the anger reduction strategy that children had utilized in parent dilemma situation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The nine year olds evaluate the effect in all seven strategy than the seven year olds.

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evaluation about the effect of anger reduction strategy that children had utilized in parent dilemma situ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and strategy.

6) There was a significance in parents' evaluation about the effect of anger reduction strategy that children had utilized in parent dilemma situ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Particularly, more mothers gave positive evaluation in all strategies than the fathers.

I propose the follow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1)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the response regarding situation of a simple recognition. Therefore, strategy may differ in actual situation. Therefore, accurate result about anger reduction strategy proposed by children can achieve accurate response if actual situation could be replayed or the responses in actual situations could be investigated.

2) Children intervened, believing that they can change the anger of parents in all anger situation. Therefore, parents must explain the reason of getting angry to their children so they can help the children's understanding. Also, children will try hard to fix the behavior that caused the parents' anger, and it will be helpful in maintaining correct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3) About the effect of anger reduction strategy that children had utilized in parent dilemma situation, parents and children both had evaluated the strategy to be effective. It may be difficult to generalize the evaluation on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Thus, this result is proposed as a reference.

부 록

<부록 1> 기초조사용 설문지(1)	49
<부록 2> 기초조사용 설문지(2)	51
<부록 3> 분노감소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자녀용 설문지	54
<부록 4> 분노감소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녀용 설문지	56
<부록 5> 분노감소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부모용 설문지	58



<부록 1>

기초조사용 설문지(1)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이 가정이지요.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며 이 물음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로만 쓰일 것입니다. 성의껏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12월

☺ 해당되는 곳의 ()안에 ○표 해주십시오. 성별: 남자() 여자()

☺ 가족 사항을 적어주세요.



☞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표현하는 분노(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표를 하거나 글로 써주세요.

(1)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하루에 한 번 () ② 2-3일에 한 번()
- ③ 1주일에 한 번() ④ 기타:()

(2) 아빠와 엄마 중에 화를 더 많이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

(3) 화를 내시는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자세히 써 주세요)

아빠의 경우	엄마의 경우
• • •	• • •

(4) 부모님이 화를 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했던 경험 즉, 말이나 행동을 자세히 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5) 위의 (4)번과 같이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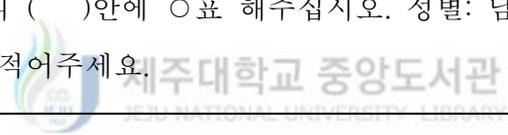
<부록 2>

기초조사용 설문지(2)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이 가정이지요.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며 이 물음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로만 쓰일 것입니다. 성의껏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12월

☺ 해당되는 곳의 ()안에 ○표 해주십시오. 성별: 남자() 여자()

☺ 가족 사항을 적어주세요. 

☞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표현하는 분노(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표를 하거나 글로 써주세요.

(1)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하루에 한 번 () ② 2-3일에 한 번()
- ③ 1주일에 한 번() ④ 기타:()

(2) 아빠와 엄마 중에 화를 더 많이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

(3) 다음은 화를 내시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경험 또는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있음직한 상황을 자세히 써 주세요)

1> 부모님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분노(화)를 하셨습니다.

① 분노를 나타내신 분	② 분노를 하신 원인	③ 부모님의 분노를 덜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 일 (말이나 행동)	④ 여러분이 ③과 같이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나 여러분의 느낌
아빠			
엄마			

2> 부모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① 분노를 나타내신 분	② 분노를 하신 원인	③ 부모님의 분노를 덜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 일 (말이나 행동)	④ 여러분이 ③과 같이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나 여러분의 느낌
아빠			
엄마			

3> 다음은 부모님끼리 서로 싸움을 하셨습니다.

① 분노를 나타내신 분	② 부부싸움을 하신 후의 모습 또는 행동	③ 부모님의 분노를 덜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 일 (말이나 행동)	④ 여러분이 ③과 같이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나 여러분의 느낌
아빠			
엄마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3>

분노감소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자녀용 설문지(본조사용)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이 가정이지요.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며 이 물음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로만 쓰일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의껏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

1. 여러분 자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에 ○표를 하거나, ___ 위에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1) 학교와 학년: _____ 초등학교 제 _____ 학년

(2) 성별: 남(), 여()

(3) 생년월일: 19__년__월__일생 ←(만 연령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적어 주십시오.

2. 다음의 □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읽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

여러분은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①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② 아빠는 왜 화가 났을까요?

③ 아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으시지요? 어떻게 하여 아빠의 화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 외)

(2) [집안에서 말썽을 부린 상황]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어서 유리잔에 따르다가 잘못하여 엄마가 아끼는 유리잔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①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요?

② 엄마는 왜 화가 났을까요?

③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으시지요? 어떻게 하여 엄마의 화를 풀어드릴까요?(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 외)



(3) [부모님 자신들 상황]

아빠와 엄마가 서로 싸웠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① 엄마(아빠)는 기분이 어떨까요?

② 엄마(아빠)는 왜 화가 났을까요?

③ 엄마(아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으시지요? 이때 여러분은 엄마(아빠)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요?(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 외)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4>

분노감소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녀용 설문지(본조사용)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이 가정이지요.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응답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며 이 물음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로만 쓰일 것입니다. 성의껏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

1. 여러분 자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에 ○표를 하거나, ___ 위에 바르게 적어주십시오.

(1) 학교와 학년: _____ 초등학교 제 _____ 학년

(2) 성별: 남(), 여()

(3) 생년월일: 19__년 ___월 ___일생 ←(만 연령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적어 주십시오.

2.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표현하는 분노(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표를 하거나, 그 외인 경우에는 ___ 위에 써주세요.

(1) 부모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① 하루에 한 번 () ② 2-3일에 한 번()

③ 1주일에 한 번() ④ 그 외: _____

(2) 아빠, 엄마 중 여러분 앞에서 화를 더 많이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① 아빠() ② 엄마()

(3) 부모님이 화를 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다. ()

② 적극적으로 화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한다.()

③ 그 외(되도록이면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 아빠와 엄마가 서로 싸웠습니다. 지금 아빠와 엄마는 서로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나는 엄마(아빠)의 화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엄마(아빠)의 화가 풀릴까요? 풀리지 않을까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항마다 ①번이나 ②번 중 하나 고르기)

1) 내가 엄마·아빠한테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2) 내가 엄마의 생각이나 아빠의 생각을 물어보고, 엄마의 생각은 아빠에게 얘기하고 아빠의 생각은 엄마에게 얘기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3) 내가 엄마(아빠)한테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드린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4) 내가 집안 일을 도와준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5) 내가 엄마(아빠)한테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시라고 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6) 내가 엄마(아빠)한테 엄마(아빠)의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7) 내가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떠들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5>

분노감소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부모용 설문지(본조사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표현하는 분노(화)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들은 학문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작성하시고 자녀 편에 보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 올림

※ 부모님 자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에 ○표를 하거나, ___ 위에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1)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학년: _____ 초등학교 제 _____ 학년

(2) 자녀의 성별: 남(), 여()

(3) 이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부모님의 성별: 부(), 모()

(4) 연령(만 _____ 세)←(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___ 위에 적어 주시거나, 해당되는 번호의 ()안에 √표를 하거나, 그 외인 경우에는 ___ 위에 내용을 써 주십시오.

(1)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하루에 한 번 () ② 2-3일에 한 번 ()
③ 1주일에 한 번() ④ 그 외: _____

(2) 아빠, 엄마 중 자녀 앞에서 화를 더 많이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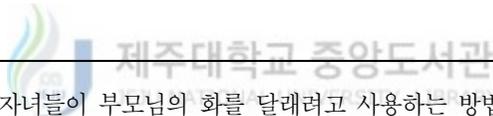
- ① 아빠() ② 엄마()

(3) 화를 내시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이의 부당한 요구나 말썽() •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의견충돌()
 -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 • 이웃이나 친척간의 갈등 표현 ()
 - 아이의 물질적 파손행위 ()
 - 그 외(되도록이면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4) 부모님이 화를 내실 때 자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다. ()
 - ② 적극적으로 중재하려 한다.()
 - ③ 그 외(되도록이면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② 번의 경우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화를 달래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 말로써 부모님을 위로하거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 ()
 - 부모님에게 다가와서 안기거나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
 - 착한 행동(부모님을 도와주기 등)을 한다.()
 - 그 외(되도록이면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5) 위의 '(4)의 ②' 적극적인 중재'를 했을 때 부모님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6) 위의 '(4)번의 ②'와 같은 자녀의 반응은 자녀가 엄마(아빠)의 화를 풀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만일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의견충돌로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겠습니까?

제시된 방법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가정을 하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문항마다 ①번이나 ②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 자녀가 엄마·아빠한테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2) 자녀가 엄마의 생각이나 아빠의 생각을 물어보고, 엄마의 생각은 아빠에게 얘기하고 아빠의 생각은 엄마에게 얘기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3) 자녀가 엄마(아빠)한테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들려준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4) 자녀가 집안 일을 도와준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5) 자녀가 엄마(아빠)한테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6) 자녀가 엄마(아빠)한테 엄마(아빠)의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7) 자녀가 노래 등을 불러 재롱을 떤다면 ……

- ① 엄마(아빠)의 화가 풀린다.()
- ② 엄마(아빠)의 화가 풀리지 아니한다.()

(※ 끝까지 성의껏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